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론



살기 위해 먹는 밥

고구마 밭이랑 우리집(농은 수련원)의 잔디가 바삭 말라갑니다. 잔디를 밟으면 타들어가는 잎이 부스러질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물을 뿌려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비가 너무 그리워집니다. 하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음을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가뭄에 농사일 걱정이 많으시지요? 더워져가는 날씨에 몸과 마음이 고되지는 않으신지요? 모두들 힘내시고 건강한 가운데 하느님께 더 희망하고 바라는 주일 예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우리에게 천상식탁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시며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영혼육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지요. 그 물은 우리가 만들 수 없고 하늘에 의지해야 되는 것임에도 그 고마움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뭄이 들면 그제야 하늘을 바라보고 기우제라도 지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늘에 의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프지 않고 하느님 안에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마움을

모르고 살게 됩니다. 늘상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미사성제는 때때로 귀찮고 아무 생각 없는 일상의 시간표 속에 있는 일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식탁의 초대가 귀찮아서 응답하지 않거나 또 잊고 살게 되면 우리의 영혼 육신이 마르고 타들어갈 수 있습니다.

밥은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니 먹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맛있는지 맛없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지니 먹는 밥일 때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식사시간보다 기억되지 않는 식사시간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그 기억되지 않았던, 고마워하지도 않았던 밥들이 더 많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먹어왔기에 현재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살기 위해 밥에 의미를 두던 두지 않던 먹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때때로 우리가 의미를 두던 두지 않던 끊임없이 당신의 몸과 피로상을 차려내실 것입니다. 그 천상의 밥상에 아무 생각 없이 숟가락을 드는 사람이더라도 당신의 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라도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밥이, 그리고 간혹 맛있었던 밥, 그 모두가 오늘을 살게 하고 천상의 내일을 준비시켜주는 밥이라는 사실을 가끔은 생각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밥을 못 먹게 되면 죽는 것처럼 하느님의 몸, 그 성체를 모시지 못하게 되는 것 또한 영혼의 죽음인 것입니다.

아기에게 가장 필요하고 완전한 음식이 어머니의 몸에서 나온 모유인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완전한 음식은 우리를 내신 하느님의 몸에서 나온 음식인 성체요, 성혈입니다.

그 완전한 천상 음식을 억지로라도 먹게 하는 것이 주일미사를 의무로 만든 교회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미사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해서 당신의 자녀라면 찾아 먹어야 되는 우리의 권리로 주장되면 더 좋겠습니다.

하늘 시민 되게 하고 주님 밥상 함께 앉는 상속자에게 허락하시는 천상의 밥상, 거룩한 미사성제에 늘 함께 하는 우리 신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농은수련원 차광철 베다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는 말씀을 하셨고, 교회는 성찬의 식탁에서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합니다. 빵과 술의 형상 안에 온전히 계시며 당신의 몸과 피로 우리를 길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이 전례에 참례합니다.

입당성가 : 168번 ‘오묘하신 성체’

본기도

† 주님, 이 놀라운 성찬의 성사로 주님의 수난을 기념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성체 성혈의 거룩한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주님께서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신명기 8장 2절-3절, 14절-16절

안 내 :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께서 사십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모든 일을 기억해야 하며, 하느님께서 만나를 먹게 해 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분이라고 전합니다.

묵 상 : 이스라엘이 고난의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성화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답송 :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제2독서 : 코린토 1서 10장 16절-17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인들에게 우리가 축복하는 잔과 함께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묵 상 : 우리에게 오신 성체와 성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는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어 주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속가 : 매일미사 119쪽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6장 51절-58절

강 론 : ‘살기 위해 먹는 밥’(1-2쪽)

예물준비성가 : 513번 ‘면병과 포도주’

영성체성가 : 166번 ‘생명의 양식’

영성체 후 묵상

주님의 자녀로서 올곧게 살아가라고

빵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주님.

마음으로는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언제나 세상의 논리와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를 향해

스스로 빵이 되신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침묵>

성체가 되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려고

우리를 직접 당신의 몸과 피로 먹이고 기르십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알아챱니다.

<침묵>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과 하나 된 기쁨을

언제나 항상 끝없이 누릴 수 있게 하소서.

공지사항

파견성가 : 202번 ‘구세주의 성심이여’

※ 공소사목 성금

상주가르멜수녀원 10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3,46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 림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6월 18일(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 : 화령 본당

■ 예신 전체모임

- 일시 : 6월 18일(주일) 12:00
- 장소 : 교구청

■ 꾸르실료 월례 미사

- 일시 : 6월 19일(월) 20:00
(매월 셋째주 월요일)
- 장소 : 송현동성당
- 꾸르실리스따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 주일학교 학부모 특강

- 주제 : '성과 생명 그리고 사랑과 책임'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특강)
- 일시 : 6월 25일(주일) 14:00 - 18:00
- 장소 : 교구청 대강당
- 대상 : 주일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및 주일학교 교사
- 준비물 : 필기도구
- 회비 : 1인 5,000원
- 신청마감 : 6월 21일(수)까지

■ 교구 성령기도회

- 일시 : 6월 26일(월) 20:30
- 장소 : 예천성당

■ 2017년 전례봉사자 교육

- 일시 : 7월 1일(토) 10:30 - 16:0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대상 : 각 본당 전례봉사자 전체
- 참가비 : 1인 10,000원
- 신청 : 6월 22일(목)까지 사목국

■ 2017년 평협 하계연수 및 임시총회

- 일시 : 7월 8일(토) 16:00 - 9일(주일) 점심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본당 사목회장단, 제단체장, 평협 상임위원
- 회비 : 1인 35,000원
- 준비물 : 미사도구, 필기도구, 세면도구 등
- 신청 : 6월 29일(목)까지 사목국

■ 문경지구 교사 연수

- 일시 : 7월 9일(주일) 13:00 - 18:00
- 장소 : 문경 본당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초등부 교재, 두레판
- 대상 :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담당 수녀
- 참가비 : 1인 10,000원
- 신청 : 7월 6일(목)까지

■ 성주 소성리 평화미사 안내

- 대상 : 이 터에서 사드 배치를 막고 평화를 일구려는 안동교구 신자들
- 일시 : 6월 19일(월) 15:00
- 장소 :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 함께함 : 정평위, 가능, 생명환경연대, 민화위

■ 농은수련원 부부피정

- 주제 : 미, 사, 고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미워요
- 대상 :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부부(15쌍)
- 일시 : 6월 24일(토)14:00-25일(주일)13:00
- 장소 : 농은수련원
- 피정비 : 부부 12만원(숙식, 피정비 포함)
- 신청 및 문의 : 054)652-0591/ 010-2785-0591

■ 독서치료와 함께 하는 어머니 교실

- 주제 : 나를 알면 아이의 마음이 보여요!
- 대상 : 주일학교 자모 혹은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일반인 포함)
- 인원 및 기간 : 10명 이내 / 주 1회 4회기
- 회비 : 총 6만원
- 장소 및 일시 : 신청본당 상황에 맞게 일시 조절하여 현장에 진행
- 신청 및 문의 : 농은수련원 054)652-0591/010-2785-0591

■ 건강한 가족 만들기(Family wellness)

- 일시 : 7월 1, 8, 15일(토) 14:00 - 17:00
- 대상 : 초중등 자녀를 둔 부모 20명
- 장소 : 그리스도의 교육 수련원 관구 4층(송현동)
- 참가비 : 1인 5만원
- 신청 : 6월 20일까지 010-6561-8835

■ 제16회 초록빛 교실

(주제 : 숲은 우리의 쉼터)

- 일시 : 7월 29일(토) 14:00 ~ 30일(주일) 15:00
- 장소 : 봉화 우곡성지
- 대상 : 생명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가족/개인/본당별 단체(선착순 150명)
- 회비 : 1인 20,000원(3식 및 간식 포함, 숙박은 텐트 또는 피정의집 이용)
- 신청 : 6월 30일(금)까지 사목국 054-858-3114~5 초록빛 교실 담당자 010-3827-2275

■ 울진 베네딕도교육관 이용안내

- 각종 세미나·연수·개인·단체피정
- 숙박·자체취사 가능
- 대강의실, 나눔방 2
- 문의 : 054-783-6684, 010-5348-3431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 (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 4장 혼인의 사랑

감정의 세계

143. 고전들에서 ‘열정’으로 불리는 욕망, 느낌, 감정들은 혼인 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른 이’가 나타나 나의 삶 안으로 들어 올 때에 생겨납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대상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언제나 즐거움이나 괴로움, 기쁨이나 고통, 편안함이나 두려움과 같은 기본적인 감정의 표징을 지닙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가장 기초적인 심리적 활동의 전제 조건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이기에, 그가 행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44. 예수님께서서는 참된 인간으로서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부에 한탄하셨으며(마태 23,27 참조) 이러한 상황에 눈물 흘리셨습니다(루카 19,41 참조). 또한 고통을 겪는 백성들을 보시고 연민을 느끼셨습니다(마르 6,34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복받치고 산란해지셨으며(요한 11,33 참조) 친구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요한 11,35 참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감정을 드러내신 것은 당신의 인간적 마음이 다른 이들을 향해 얼마나 많이 열려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45.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옳거나 그른 것이 아닙니다. 욕망이나 반감이 들기 시작하는 것은 죄가 되거나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옳거나 그른 것은 열정으로 또는 열정에 이끌려 실행한 행위 자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을 촉발하고 그 감정을 살피면서 감정에 따라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감정을 더욱 키우려는 결심과 그 감정에 굴복한 악한 행위 안에 악이 존재하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떤 이에게 끌리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대한 끌림으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면, 나의 감정을 오로지 이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좋은 감정을 지녔다’고 해서 자기가 선하다고 믿는 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단지 스스로가 애정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자신이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는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자신의 욕구와 욕망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이러한 경우, 감정은 고귀한 가치들로부터 멀어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발전시킬 수 없도록 하는 이기심을 감추게 됩니다.

146. 다른 한편, 열정이 자유로운 행동을 이끌어 낸다면, 그 열정은 그러한 선택의 깊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부부 사랑은 모든 정서 생활을 가정 전체에 이로운 것으로 그리고 가정의 공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가정 구성원의 정서 생활이, 중대한 결정과 가치를 억누르거나 흐리지 않는 감수성으로 변할 때에 가정은 성숙해집니다. 오히려 이 감수성은 모든 이의 행복을 위하여 저마다의 자유를 존중하고 이 자유에서 흘러나와 이 자유를 풍요롭고 아름답게 해 주며 더욱 조화를 이루어줍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자녀의 기쁨을 사랑하십니다

147. 이는 훈육의 길, 곧 절제도 수반하는 과정을 요구합니다. 교회의 이러한 확신은 종종 마치 인간의 행복에 반대되는 것으로 거부되어 왔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이러한 비난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매우 명료하게 요약하십니다. “교회가 그 모든 계명과 금기로 삶의 가장 고귀한 것을 쓰디쓴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은 아닌가? 창조주의 선물인 기쁨이 우리에게 하느님의 것을 어느 정도 미리 맛보게 해 주는 행복을 주는 바로 그 순간에 교회가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닌가?” 이어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교에 가식과 그릇된 금욕주의가 있었지만 성경에 충실한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은 “에로스 그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곡되고 파괴적인 형태의 에로스를 물리치고자 하였습니다. 에로스를 그릇되게 신격화하는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에로스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에로스를 비인간화하기 때문입니다.”

148. 감정과 본능에 대한 훈육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때때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즐거움에만 지나치게 빠져 있거나, 자제력을 잃거나, 집착하면 결국 바로 그 즐거움은 약해지고 병들어서 가정생활에 해를 입히게 됩니다. 사실 인간은 열정으로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정은 헌신과 온전한 자아실현을 향하여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의 품 안에서 인간관계를 증진시켜 줍니다. 이는 강렬한 기쁨의 순간을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쁨을 받아들이면서 관대한 헌신, 인내심 있는 기다림, 어쩔 수 없는 피로,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의 순간들과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생활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으로 온전히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149. 일부 영적 사조에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욕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기쁨을 사랑하신다고, 곧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어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신다”(1티모 6,17 참조)고 믿습니다. 하느님의 은유함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분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얘야, …… 자신을 잘 보살피고 …… 그날의 행복을 마다하지 마라”(집회 14.11.14 참조). 이와 같이 훈인한 부모도 “행복한 날에는 행복하게 지내라.”(코헬 7,14)라는 성경 말씀을 따르면서 하느님의 뜻에 응답합니다. 즐거움이라는 것이 상호 사랑의 필요에 따라 삶의 여러 시기에서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유를 지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편협한 경험에 갇혀 있지 않으려면 우리의 의식을 넓혀야 한다고 촉구하는 일부 동방 스승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의식의 확장은 욕망을 거부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넓히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 다음에 계속 -



이석의 이사

박월수 아네스
(안동가톨릭문인회)

네모난 상자 속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새뜻한 미달이문이 양쪽으로 벌어진 다음 순간이었지요. 사람들이 내리고 나자 곁에 계시던 아버지는 제 손을 잡아끌며 저 상자를 타자고 하셨습니다. 함께 달려 들어온 사람들로 상자 안은 금세 가득 차 버렸지요. 잠시 후 문이 저절로 닫히고 네모난 상자는 아래로 푹 꺼지는 듯하더니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는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지만 엄한 얼굴의 아버지께는 표시 내지 않았습니다.

겨우 여덟 살 무렵이었습니다. 도시 변두리 작은 동네가 세상의 전부였던 저는 변화한 시내를 매일같이 가 본 것도, 엘리베이터란 걸 타 본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자꾸만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는 딸을 데리고 농부인 아버지는 생업을 팽개치고 여기저기 용하다는 병원을 찾아다니던 길이었지요. 진료가 끝나고 여전히 병명을 모른 채 그 이상한 상자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에도 어지럼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앞 반점이란 곳에서 아버지는 늦은 점심을 사 주셨습니다. 하얀 대접에 담겨 나온 건 비닐수록 검은 색이 도는 국수였습니다. 저는 처음 본 그 음식을 선뜻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지요. 아버지는 별건 국물이 든 국수 한 그릇을 바쁘게 비우셨습니다. 또 다른 병원을 알아보러 가야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몇 번 끼적거리다가 적당한 때에 젓가락을 내려놓았지요. 제대로 먹지 못해 뼈만 앙상한 딸을 위한 아버지의 배려는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즈음의 아이들이 없어서 못 먹는 환장할 맛을 지닌 음식이라고 성의껏 설명해 주셨다면 하는 생각을 좀 더 자라셔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소파 모서리에 크게 부딪혔는데 가슴 아래쪽이 결리고 아파왔습니다. 모처럼 친정에 머물며 가슴 사진을 찍고 영약 수액을 맞고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 약을 먹은 후 나른해지는 느낌이 들어 자리에 누우려는데 갑자기 천장이 움직이고 바닥이 울렁거렸습니다. 몸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지요. 이어 구토가 났습니다. 그때 잠시 싸르르를 떠올린 것도 같습니다. 지천명을 바라보며 도시에서 농촌으로 터전을 옮긴 후 저도 모르게 많이 쓸쓸했던 가뭄입니다. 사는 일의 덧없음과 끝 모를 권태에 진저리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스꺼운 건 가라앉았으나 온 우주는 아직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병명을 모른 채 몇 군데 병원을 찾아 다녔습니다. 머리 사진을 찍었고 신경과 진료를 거쳤고 마지막으로 귀 검사를 했습니다. 귓속의 돌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몸의 수평을 유지하는 돌 알갱이가 제자리를 박차고 나와 엉뚱한 곳으로 이사를 한 때문이었습니다. 몸 속의 아주 작은 부품 하나가 제자리를 이탈해도 이리 힘든데 삶의 한가운데서 터전을 완전히 바꾼 저와 남편은 그동안 잘도 참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 울컥 서러워졌습니다. 병명을 알기까지 끝 모를 어지럼증으로 인해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절망에 빠져 지냈지요. 어릴 적 탔던 엘리베이터에 갇혀 영원히 내릴 수 없으리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석이 제자리를 찾아가길 기다리는 동안 구순이 눈앞인 노모를 대신해준 고마운 지인들이 많습니다. 저를 부축해 병원을 데려다 주고 영양제를 맞춰주며 식욕을 북돋울 음식을 해서 날라준 분들이 있어 견딜만했습니다. 하필이면 가장 눈부신 계절을 저는 누워 지냈고 시골은 일손이 바쁜 농사철이었습니다. 과수원 일에 묶여 지내던 남편은 겨우 짬을 내어 들러서는 병원 한 번 데려다 주고 죽 두어 그릇 사서 놓아두곤 가버렸지요.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말은 묻어둔 채로요. 나이 들수록 오래 전의 아버지와 남편은 어찌면 그리도 닮았을까요.